

문예진흥기금 고갈 임박... 지역예술계 어찌나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쓰였던 문예진흥기금이 2016년이면 고갈돼 전국 문화재단에 비상이 걸렸다. 예술가와 단체의 현실적인 활동을 지원하던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되면 문화예술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지역예술계는 현 지역문예진흥사업 지원 체계를 유지하거나 별도의 재원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문화재단 '비상'〉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광주와 서울·대구 등지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다. 전국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31일 광주문화재단 다목적실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연다.

전국 문화재단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선 것은 문예진흥기금 고갈이 지역 문화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예진흥기금은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973년부터 조성됐다. '문예진흥법'을 근거로 공연장과 영화관, 문화재 등의 입장료에 일정 비율을 부가해 기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적립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03년 말 문예진흥법의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모금이 사라졌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3년 말 모금이 중단된 이후 적립금 이자수입 외에 월급을 월여 예술계를 지원해왔지만 2004년 5273억원이던 적립금은 2014년 1547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이대로 가면 올해 말 920억원, 2016년말 151억원으로 줄어 2017년에는 사업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술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예산 지원 감소에 따른 사업 축소다. 전국 13개 광역 시도문화재단의 2015년 예산 총액은 3069억원인데 이중 자체 총당 비율은 1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산의 대부분을 지자체 출연(15.5%), 위탁(32.7%), 국비지원금(35.9%)이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예술계의 창작 활동을 위해 쓰였던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여 지역 예술계가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문예진흥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금을 받은 '그린발레단'의 공연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2004년 5273억→2016년 151억... 전국 문화재단 비상 정부, 국비편입 시도... 예술인들 "선심성 예산 변질" 우려 31일 광주 문화재단서 대안 마련 위한 관련 토론회 개최

특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등 지역발전사업은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광주문화재단의 경우 올해 각각 8억 5500만원과 4억3700만원을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받았고, 전남문화예술재단도 각각 10억여원, 4억7400만원을 받아 요긴하게 썼다.

◇기금 존치 등 대안 논의=정부는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에서 배분하던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예산을 국고의 지역협력형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기금을 다시 조성하기보다는 국가 예산에 편입해서 각 지자체에 넘겨준 뒤 지자체가 특성에 맞게 예산을 쓰

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술인들은 이 대목을 짚고 넘어가고 있다. 예산의 쓰임새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일부 지자체장이 선심성 예산으로 이를 집행할 우려가 있다. 몇몇 단체와 개인에게 돌아갔던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산이 대규모 공연이나 행사에 쓰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2016년, 2017년 예산의 경우 다른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찬성(15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중 2곳)하는 쪽은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대(11곳·중립 2곳)하는 쪽에서는 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순수 문화예술지원 사업이 휘둘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토론회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1일 광주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문예진흥기금 고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 재단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지역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를 특화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반대하는 문화재단과 예술인들은 현행 지역문예진흥사업 지원 체계를 유지하거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별도 재원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극장 영화 '피아니스트' 상영

8월 2일·5일

쇼팽의 '아상곡'과 '발라드'를 비롯해 그의 피아노 음악이 아름답게 쓰인 '피아니스트(사진)'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영화다.

광주극장이 '피아니스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8월2일 오후 2시, 5일 오후 7시 20분.

유대계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스피elman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피아니스트'는 아름다운 음악과 감동적인 스토리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1939년 폴란드 바르샤바, 라디오 프로그래머에서 쇼팽의 아상곡을 연주하다 폭격을 당한 스피elman은 가족들과 계도에서 생활하다 수용소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는다.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보내고 간신히 목숨을 구한 스피elman은 자신만의 은신처에서 끈질기게 생존을 유지하다 독일 장교에게 발각되고 마지막 연주를 시



작한다. 로만 폴란스키가 메가폰을 잡았으며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아카데미상 감독상, 남우주연상(에드린 브로디), 각색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전통문화관 하반기 강좌 수강생 모집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하 전통문화관)은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5하반기 전통문화예술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국악실기(판소리, 가야금) ▲전통공예(미니정약가야금 만들기, 서예보 만들기) ▲전통음식(남도향토음식) ▲전통다도 ▲전통무용 ▲전통민화 ▲청소년가야금병창 등 총7개 분야 11개 강좌로 1개 강좌 당 15회 운영되며 모든 강좌는 전통문화관에서 진행된다.

강사진은 전통문화관에 상주해 있는 광주시지정 무형문화재로 구성되어 있다. ▲판소리=정춘실(제15호 판소리 동편제 예능보유자), 방성춘(제16호 판소리 춘향가 예능보유자), 이임래(제14

호 판소리 강산제 예능보유자) ▲가야금과 청소년가야금병창=문명자(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전통공예=이복수(제12호 악기장 기능보유자)와 민상호(제4호 필장 기능보유자) ▲전통음식=최영자(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 기능보유자) ▲전통다도=김영미(호남 차문화협회 전문강사) ▲전통무용 강의는 김덕숙(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선생 ▲전통민화=이성임 작가 등이다.

강좌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1회 15주 진행되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접수는 8월5일부터 20일까지다. 전통문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된다. 문의 062-232-150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담양 창평 슬로시티 지정 9주년 기념음악회 'Slowly' 개최

내달 9일...음악·무용 등 다채

'느리지만 행복한 곳.' 담양창평 슬로시티 위원회는 8월 9일 오후 7시부터 담양 창평 슬로시티 방문자 센터 인근에서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지정 9주년 기념음악회인 'Slowly'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소프라노 주수연씨와 바리톤 김대수씨, 한국무용 이정숙무용단, 가야금 연주자 김한아씨, 바이올린 연주자 윤성근씨, 가수 강형태씨 등을 비롯해 30여 명의 음악인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다양한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음악 공연 기획은 민은규씨, 연출은 달빛오디세이의 김현욱씨 등이 재능기부로 힘을 보탤다. 무대에서는 김숙희씨가 느림의 미학과

삶의 여유에 대한 단상을 담아 쓴 곡 'In slow city', 조지훈 시인의 시에 윤이상시곡을 붙인 '고풍의상', 영화 선들러리스트 OST 'theme from schindlers list', '신

고산타령',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앞서 오후 4시부터는 달팽이 시장이 특별개장한다. 달팽이 시장에서는 슬로시티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재료들로 차려지는 먹을거리장터가 열린다. 마을 명인들이 '슬로푸드&슬로아트시장'에서 다양한 솜씨를 뽐낼 예정이다. 달팽이 시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사용할 수 없다. 방문객들은 직접 그릇이나 장바구니를 가져오거나 달팽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장바구니를 구입해 상품을 담아가면 된다. 문의 061-383-380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뮤지컬 '빛골아리랑' 아역배우 4명 공모

9월 17~18일 문예회관서 공연

광주문화재단은 제4회 광주아리랑대축전(9월 17~20일)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빛골아리랑'에 출연할 아역배우 4명을 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노래와 춤·연기 능력을 갖춘 키 145cm 이하로 나이 제한은 없다. 연습·공연 일정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아역배우들은 여자주인공 막이와 남자주인공 염동식, 광주 등이 어린 시절

총장으로 뒷골목에서 어울리는 장면 등에 출연한다.

배우로 최종 선정되면 서울 뮤지컬하우스 호연재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연습을 거쳐 9월 공연에 출연하게 된다.

'빛골아리랑'은 예술감독 박운모, 총연출 유희성, 안무 오재이, 음악 이경화 씨가 맡았으며 오는 9월 17~18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접수는 8월 1일까지이며 오디션은 오는 8월 3일 열린다. 문의 062-670-797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

전국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인 호남예술제 6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전시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최근 10여년간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 최고상 수상작 전시 호남예술제 출신, 작가, 심사위원 등 후원작가 작품 전시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88(입장료 무료)

2015. 8.13(목)~8.22(토) 오전10시 ~ 오후5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 2전시실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